

PREVIEW

지누박 개인전 <OH NO MORE ART>
Zinoo Park solo exhibition <OH NO MORE ART>

전시기간 | 2017. 6. 21 수 - 7. 2 일
오프닝 리셉션 | 2017. 6. 21 수 18시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디자이너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지누박(Zinoo Park)은 예술의 의미에 대하여 묻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학교에서 졸업 전시 후 버려진 캔버스 작업 표면에 하나의 레이어를 덧씌워 예술로서의 행위와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고찰한 작가로서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작가 노트

내가 <OH NO MORE ART> 시리즈로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과장되고 과잉생산되는 예술에 대한 나의 직설적 조크인 동시에 중의적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 퍼즐 같은 타이틀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는 새 캔버스 위에 'Oh! No more Art'라는 텍스트를 다양한 서체와 조합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내게 있어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형식의 페인팅이었다. 디자인적 접근방법과 뉘앙스가 회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읽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나는 내가 조합해낸 이미지가 TV 화면과 분리된 자막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는 페인팅의 이미지와 무관한 텍스트의 우연적 결합이 새로운 컨텍스트(Context)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었다.

몇 개월 후 학교에서 버려진 캔버스를 들고 와 그 위에 같은 텍스트 작업을 시작했다. 그때까지 그 버려진 작품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 주워 온 소재로서의 캔버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버려진 그림 위에 그린 'Oh! No more Art'는 나의 예술을 훨씬 뛰어넘는 수 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도 이 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대화하게 만들었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자신들이 추구하는 예술에 대한 가치관과 사람들이 인식하는 현실적 예술 세계 간의 거리감, 학생들이 예술과 예술계를 혼동하며 느낀 좌절들, 미대 학생들로부터 버려진 작업 위에 나의 텍스트 그림이 올라가면 하나의 캔버스에 두 사람의 생각이 공존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작업을 한 나의 생각으로 온전히 전이되는 것인가?

물론 그런 추상적 질문이 아닌 작고 구체적 질문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나 스스로도 처음에는 궁금하지도 않던 그 그림의 내용이나 캔버스 뒤에 써놓은 이름의 그 학생 조차도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왜 이 그림을 그렸으며 왜 버렸을까? 자신이 버린 걸까? 잃어 버린 걸까? 이렇게 변형된 자신의 작업을 우연히 마주한다면 그 학생은 어떤 감정이 들까? 학과에서 공식적으로 버린 그림이라 했지만, 새로 완성된 이 그림의 소유권은 나에게만 있는 걸까? 등등. 그래서 이런 질문들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도 하고 영상 감독과 함께 도큐멘팅을 하면서 본격적인 의미의 <OH NO MORE ART> 작업의 시작이 되었다. 학교의 쓰레기통과 길가에 버려진 작업(페인팅)위에 'Oh! No more Art'라는 마치 타이틀 자막이나 프로파간다와도 같은 텍스트가 올라가면서 그 작업은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것을 발견 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수로서 대학에서 지내며 학생들이 졸업 후에 포장도 뜯지 않은 그림을 버리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해 하던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었다. 마치 1%의 부자와 99%의 가난한 자들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처럼 우리 미술을 하는 학생들도 졸업할 때 즈음이면 스스로가 1%가 아닌 99%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전공을 포기하며 그림을 버리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과 자신이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매달리며 그려온 작품이 판매가 되는 제화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면 바로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현실적 모습들도 느껴졌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이 버려진 캔버스를 쓰레기 속에서 건져내어 다시 미술관에 전시되는 상황극을 만들어내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2006년)에 앤디워홀 추모전에 전시했던 페이크백(FAKE Bag)작업을 할 때, 짝퉁 루이비통 가방을 사서 그 위에 짝퉁(FAKE)이라는 텍스트를 그려 전시장에 전시하며 오리지널 가방의 가격과 똑같은 오리지널(Original)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던 'Truth & Irony'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놓인 작업이기도 하다. '아이러니(IRONY)'는 내가 그간 디자인과 순수 예술 작업 모두에서 일관 되게 흐르는 주제이기도 하다.

신기운 개인전 <세상은 회색이다>
Shin Kiwoun exhibition <The world is GRAY>

전시기간 | 2017. 7. 6 목 - 7. 27 목
오프닝 리셉션 | 2017. 7. 6 목 18시



The world is gray, 캔버스에 분쇄된 미니자동차 가루, 35×50cm, 2017

◎ 작가 노트

이번 전시는 '세상의 절대 선과 악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오랜 질문에 대하여 "세상은 회색이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흔히 선은 흰색, 악은 흑색으로 표현되는 것에서 우리가 과연 판단할 수 있는 가치인가? 오히려 세상은 모두 모호한 선과 악의 저울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좀더 흰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좀더 어두운 회색이 되어 인식되는 것이지 않을까?

이번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전시에서는 가치에 대한 가치판단 인식의 모호성을 두가지 시각적 인식의 방식으로 표현해 보려 하였다. 하나는 다양한 현실의 사물을 '가는 기계'로 갈아 가루로된 사물들을 캔버스에 펼치면서 그 사물의 원래의 색을 단어로 남기를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다른 하나는 색에 대한 당연한 인지가 되어 있는 흔한 사물을 회색으로 색을 덮어서 화면서 비슷한 회색조로 보이도록 모든 사물이 각기 다른 명도의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전시장의 사물들이 마치 흑백 텔레비전 시절의 방송국 무대를 만들 듯이 흑백모니터를 보는 듯한 상황을 만드는 설치와 영상이 결합된 작업이다. (작가는 직접 '가는 기계'를 고안하여 2003년 부터 다양한 사물들을 갈아 영상작업을 진행해 왔다.)



1. 세상의 선과 악은 분명히 판단가능한 가치인가? - 영화 '패트리어트 게임'에서는 악당 역할이 세상(흑(악)과 백(선))으로 뚜렷이 양분되어 있는것이 아니라면서, 'Gray, the world is Gray'라고 주인공(해리스 포드)을 설득한다. 철학자 칸트는 선(善)과 악(惡)에 대하여 선을 지향하는 인간이 온전하지 않은 선을 행하다 보면 악한 성향을 띠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람은 선을 지향하도록 태어났지만 반드시 선민을 지향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2009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정의(Justice)'에 대하여 현대사회에서 악(惡)은 불투명하게 드러나기에 선(善)의 입장에서 철학적 해명이 절실하다라고 하였다.

2. 어린시절 기억속 세상의 색 - 어린시절에 경험한 만화나 영화속의 등장인물들은 쉽게, 선과 악,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쉽게 주인공은 선, 반대편은 악이라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다시보기를 하다보면 악당이 악이 아니었고, 주인공이 선한게 아닐 수 있다는 걸 보다가 놀라는 일이 생기고 있다.

3. 형형색색의 사물들이 갈리고 난 후의 사물들의 색 - 오랫동안 갈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모아온 다양한 색을 가진 사물들의 가루는 대부분 회색이다. 여러가지 소재와 색을 가지고 있던 사물들을 갈면서 모아 놓은 가루들이 회색으로 남게되면서 형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색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양한 색의 미니 자동차를 갈아서 모아진 회색의 가루를 모아 평면작업으로 만들어 보았다. 처음으로 회색에 대한 사회적 이야기를 시작했다.

4. 정치와 정당들의 대표색 그리고 작은 전쟁터인 체스판 세상 - 지난 대선, 선택의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처음으로 나는 흑과 백이 분명해 보이도록 역광 상황에서 촬영하여, 모노톤의 음영 작업을 하였다. 정치가들의 모습을 빚댄 듯한 체스판의 말들과 왕, 그리고 여왕이 가루로 갈려 그림자로 내려 앉는다.

| REVIEW with PHOTOS |

제 9회 PT & Critic 임가영 <워크 워크 프로젝트>
Lim Gayoung solo exhibition <Work Work Project>
2017. 5. 10 수 - 2017. 5. 30 화



방금 포장을 간 포도맛 새콤달콤처럼 부드럽고
즐거워 주는 연보라색은 내 페이지를 켜
리다. '황제'의 색으로도 불리는 보라색은 미치
광이의 색으로 언급이 되는데, 나에겐 슬프면서
도 고상한 색이다. 안 친할 것 같은 임가영 작가
과 아버지는 작업의 여정 속에서 그 색을 만들어
줬다. 대조되는 남빛과 자줏빛이 합쳐서 탄생
되는 그 색을 말이다.

주제인 '노동'은 달콤한 단어로 들리지만은 않는
다. 돈을 지불하는 자가 갑(甲)이고 황제인 요즘
시대엔 더더욱 그렇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지면 노동자 또한 황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꼭
왕이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보라색 안에
선 자신이 행한 것을 의기양양해도 될 것 같다.
아, 물론 미술가도 말이다.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 1 | 전시장 전경
- 2 | PT & Critic 프로그램, 5월 20일
(패널 : 이정형, 이성휘, 문선아)



권혁 <컨트롤드 앤 언컨트롤드>
Kwon Hyuk solo exhibition <Controlled and Uncontrolled>
2017. 4. 7 금 - 2017. 4. 29 토



- 1 | 전시장 전경
- 2 | 아티스트 토크, 4월 15일
(패널 : 오세원)

컨트롤과 언컨트롤을 넘나들었던 이번 전시는 마치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읽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한 인간에게 두가지 성격체가 공존하듯 평면과 입체, 통
제와 자유로움이 뒤섞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었다. 언컨
트롤까지 컨트롤하려는 권혁 작가의 작업을 대하는 태도
는 지킬이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하이드와 끊임없이 싸우
는 과정과 닮아있었다. 지킬의 마지막 대사가 떠오른다.
'내가 었본 진실은 나를 무시무시한 파멸로 이끌었는데
그 진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둘이라는 것이었다.'
(글. 최원재 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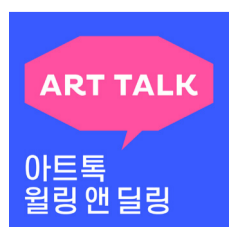
Meet & Talk : 남진우 x 장한
2017. 4. 13 목 19시



남진우 작가와 장한 작가는 '네버랜드
(Neverland)'라는 주제로 4월 M&T 프로
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 1 | 장한 작가
- 2 | 남진우 작가

팟캐스트 <아트톡 윌링앤딜링>



★<아트톡 윌링앤딜링>은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등과 함께
현대미술의 다양한 썬을 들여다봅니다.

팟빵 <http://www.podbang.com/ch/14065>

사운드 클라우드 <https://soundcloud.com/arttalkwillingdealing>

아이튠즈 https://itunes.apple.com/kr/podcast/아트톡_윌링앤딜링/id1239185179?mt=2

- 진행 : 김인선
- 로고 디자인 : 추미림
- 인트로, 아웃트로 : 한황수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제목없음

김영민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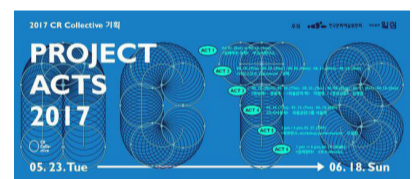
김영민 작가는 공간 가변기기에서 개인
전 <제목없음>을 가졌습니다.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천창환 작가는 신한갤러리(역삼)에서
단체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장치>에 참
여했습니다. 2017년 5월 11일부터 6
월 14일까지.

강석호 작가는 페리지 갤러리에서 개인
전 <the other>을 가졌습니다. 2017년
6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변상환 작가는 의외의조합에서 2인전
<Love and Peace>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권혁, 이정형 작가는 씨알 콜렉티브에
서 단체전 <Project Acts 2017>에 참
여했습니다. 2017년 5월 23일부터 6
월 18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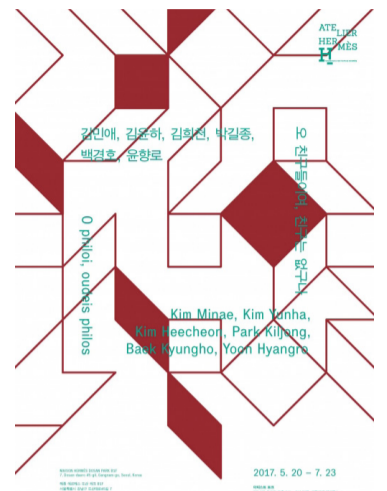
강현선 작가는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단
체전 <Meta-scape>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종완 작가는 문화역서울 284에서 단
체전 <프로젝트284 : 시간여행자의 시
계>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부터 7월 23일까지.

구민정 작가는 ART SPACE GROVE 개
관전 <Trans_Space>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최승훈 작가는 성북예술동 #3 · 성북1
치안센터에서 단체전 <예술섬 잇기>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5월 17일부터 6
월 10일까지.



백경호 작가는 아틀리에 에르메스
에서 단체전 <오 친구들이여, 친구
는 없구나>에 참여했습니다. 2017
년 5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경현수 작가는 갤러리 퍼플에서 개
인전 <임시적인 선 / 덩어리>를 가
졌습니다. 2017년 5월 12일부터 6
월 24일까지.

권오상 작가는 K현대미술관에서 2
인전 <이것은 현대미술관이다>에 참
여했습니다. 2017년 5월 20일 부
터 9월 1일까지.

| W&D NEWS |

김인선 디렉터는 최근에 팟캐스트
<아트톡 윌링앤딜링>을 시작하여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실행하고 있
다며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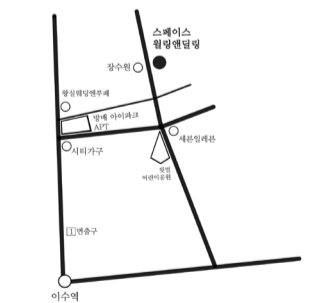
한황수 코디네이터는 평창동에 위
치한 수애노339에서 여름에 있을
개인전 <Are you gentle?>을 준비
중이다. 대우차에서 상취야 한다는
주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원재 인턴은 최근 작업실과 매
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월룸으로 이
사, 효율성있는 생활패턴을 만들기
로 한다.

이경아 전 코디네이터는 요즘 인체
해부학에 빠져있다고 한다. 혹독한
다이어트의 여파라고 조심스럽게
집착 해본다.

조근준 전 인턴은 졸업작품 제작을
위해 게임제작물을 사서 인터페이
스를 익히고 있는 중이다. 이제 겨
우 캐릭터 대사를 넣을 수 있는 단
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오시는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 행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 한황수, 최원재
감 수 : 김인선
발행일 : 2017년 6월 15일